한국 아트 퍼니처의 계보학

<매터 앤드 매스: 아트 퍼니처>

아트 퍼니처가 본격적으로 발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안드레아 브란치(Andrea Branzi) 등이 스튜디오 알키미아(Studio Alchymia)나 멤피스(Memphis) 같은 디자인 그룹을 형성하면서부터다. 이들은 기능성과 시장 논리로만 평가받던 기성 가구의 관념을 뛰어넘어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퍼니처를 올려놨다. 이후 작가주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들이 이 흐름을 이어왔다.

한국에서 아트 퍼니처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초,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최병훈 교수에 의해서다.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으로 아트 퍼니처 과목을 신설하고 1993년에는 개인전을 열며 '행동하는 교육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후 20여 년이 지났다.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던 개척자는 이제 명실상부 한국 아트 퍼니처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고* 그가 길러낸 후학들 역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매터 앤드 매스: 아트 퍼니처〉전은 1세대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의 관록과 후진들의 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정년 퇴임을 눈앞에 둔 최병훈 교수가 2009년 이후 그가 길러낸 작가 13명의 작품 20여 점을 모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채취한 현무암을 깎아 글씨나 그림을 단숨에 그려내듯 한 획의 오브제를 완성시키는 최병훈은 이번 전시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새로 제작하며 관록을 보여줬다. 자연석에 구조적 요소를 도입해 재료의 물성과 기능성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그의 작품에는 완숙미가 흘러넘쳤다. 평소 작가로서의 독자적 세계관 구축을 강조한 덕일까, 그와 함께한 작가 13명의 작품도 하나같이 독창적이었다.

김진우는 '벤치 위드 스크린 1(Bench with Screen 1)'을 통해 한국 전통 문양의 은은한 미감과 현대 조형의 특징인 비대칭적 구성과 불확정적 특성을 결합시켜 제품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가구 디자인을 제안했다. 이현정의 '베리에이션 오브 컬러 V3(Variation of Color V3)'는 한옥의 창에 담긴 추상성을 가구에 녹인 점이 돋보였는데 미닫이창을 열 때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공간감과 추상적 색면이 눈길을 끌었다. 과감한 소재와 기술의 도입 또한 흥미로웠다. 김건수는 3D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이용해 자연적 물성과 디지털 철학의 융화를 시도했다. 또 강현대는 상온에서도 녹지 않는 성에를 응용해 의자 '프로스트(Frost)'를 디자인했는데 성에가 자라나는 과정에 따라 의자 형태가 변하도록 해 자연 순환의 과정을 보여줬다.

일찍이 에토레 소트사스는 "모든 것을 흰색으로 칠해버린다면 당신의 영혼조차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디자인 세계에 돌을 던진 그의 한마디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그중 한 갈래였던 한국 땅에서 아트 퍼니처의 계보가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글: 최명환 기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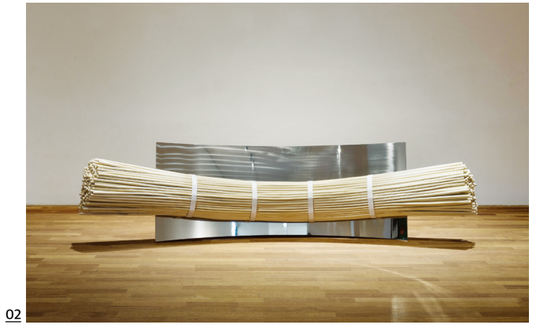
02

03

01 가나아트센터 3층의 한 전시실은 오직 최병훈 작가의 작품으로만 채워졌다.
02, **03** 최병훈 작가의 '애프터이미지 오브 비기닝(Afterimage of Beginning)' 연작. 선사시대 고인돌 형상에 현대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2톤이 넘는 무거운 돌을 부드럽게 조각하기 위해 물 또는 토치(blowtorch)를 사용했다.

*최병훈은 2014년과 2016년 뉴욕 프리드먼 벤다(Friedman Benda)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메이저 갤러리에서 다양한 해외 전시를 진행했다. 파리 장식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01


02

03

01 김진우의 '벤치 위드 스크린 1'. 호두나무, 흰 참나무, MDF, 아크릴 패널 등을 사용했다.
02 정명택의 '아케이드 시트 17S01 (Arcaded Seat 17S01)'.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 내재된 자연미를 '무위의 순수미', '무심의 단백미', '무형의 공간미'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집약하고 디자인에 반영했다.
03 김건수의 '어나더 스톤 앤드 스톤 (Another Stone and Stone)'. 돌을 스캐닝해 3D 프린터로 재현해냈다. 자연의 돌과 재현해낸 돌은 동질감과 이질성을 함께 드러낸다.
04 홍민정의 '에테보리 컨테이너'. 3년여간 스웨덴 에테보리에 머물며 얻은 경험과 기억을 아크릴 수납함과 트렁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05 강현대의 '프로스트' 의자.
06 이미혜의 '프롬 일월도 A-WS1'. 조선 시대 어좌 뒤편에 놓여 있던 일월오봉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07 이현정의 '베리에이션 오브 컬러 V3'.

04

05

06

07

Interview

최병훈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시대정신을 어떻게 작품에 녹여낼지 여전히 고민이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전시를 연 이유가 궁금하다.

처음 아트 퍼니처를 도입했을 때만 해도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젠 박사과정이 생겨났을 정도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당연히 그동안 좋은 작품이 많이 등장했는데 제자들의 좋은 디자인을 좀 더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번 전시를 열게 됐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의 아트 퍼니처 영역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내가 세계 시장에 왼발쯤 들여놓은 것이라면 이들은 중심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자 최병훈의 삶을 되돌아보자면?

홍익대학교에서 27년 6개월 동안 재직했다. 결과는 미진했을지 몰라도 주어진 소명에는 최선을 다했다. 돌이켜보면 이 장르를 개척하고 후학들에게 길을 알려준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21차례 개인전을 치렀는데 이것 역시 내가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내용이 허구나 이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한 것이다. 학장, 박물관장, 미술관장 등 중앙 보직을 맡았던 10여 년 동안 작가로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또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다.

퇴임하더라도 작가 최병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물론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작가로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나도 궁금하다.(웃음) 얼마 전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다 돌고 왔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읽어낸 시대정신을 어떻게 작품에 녹여낼지는 여전히 고민이다. 감각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나간 가치에 매몰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바통을 이어받을 후배 작가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 교육자로서 평생 강조해온 말이다. 단, 너무 조바심을 내진 말기 바란다. 80세가 넘어 각광받기 시작한 단색 화가들을 생각해보라.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며 끝까지 길을 걸어야 농축된 시간이 작품에 배어 나온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휴스턴 파인 아트 뮤지엄(Museum of Fine Arts, Houston)이 2019년 12월을 목표로 신관 개관을 준비 중이다. 이곳에 전시할 작품을 의뢰받아 지난 7월 현장을 다녀왔다. 하나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의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조각에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